3년 내 수소충전소 310곳 구축

"수소경제 불확실성 해소될 것"

한국 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10곳이 만들어 수소차 운전자가 최대 30분 이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이날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현재 8곳에서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년 안에 전국 어디라도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310기(누적 기준)의 수소충전소 망이 깔리게 된다.

10월 현재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31기이며 당장 연말까지 86기(누적·착공 포함)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 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천 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km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별로 특화된 방식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수소유통센터'를 설치해 적정 수준의 수소 가격을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튜브트레일러 제작, 파이프라인 건설, 액화 운송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수소 가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초기에는 구축 목표 달성과 원활한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배치해 설치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 및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의 장기적인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재 40%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체수소 충전소와 비교할 때 설비 면적은 20분의 1, 충전용량은 3배 등의 장점이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도 2022년까지 3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와 혁신도시, 수소 시범도시 등에 충전소를 우선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정책 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충전소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수소차 이용자의 수소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급쟁이 3명 중 1명 월 200만원 못 번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경제' 에 따르면 한국의 통계청은 이날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취업자 2030만10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9.7%, 100만~200만 원 미만이 24.3%였다.

200만~300만 원 미만은 31.0%, 300만~400만 원 미만은 16.9%, 400만원 이상은 18.0%였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0.1%포인트, 100만~200만 원 미만은 4.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0만~300만 원 미만과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은 각각 1.9%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 원 이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71.9%가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비중이 가장 컸다. 서비스종사자는 71.8%, 판매종사자 45.1% 역시 월 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대분류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66.8%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6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2.6%)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703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673만8000명이었다.

산업 소분류별로는 음식점업 취업자가 172만7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인 6.4%를 차지했다. 작물 재배업 취업자 수가 122만5000명(4.5%), 비거주 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98만7000명(3.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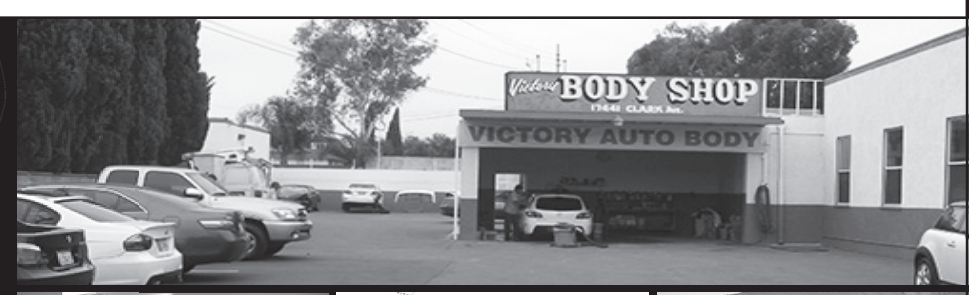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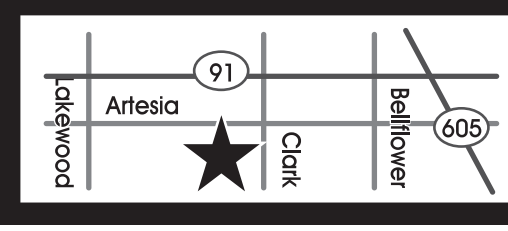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11.0%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취업자는 11.9%, 건물건설업은 9.1%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작물재배업 취업자가 70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음식점업이 109만8000명으로 단연 많았다.

연령계층별로는 15~29세 가운데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55만6000명)가 가장 많았고 30~49세에서는 교육서비스업(103만8000명), 50세 이상은 농업(117만1000명) 분야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158만6000명)가 가장 많았지만, 고졸 가운데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117만명), 중졸 이하는 농업(82만5000명) 취업자가 두드러졌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